

## 女性指導者와 大學教育



서울女大 學長 高 鳳 京

대학교육의 使命이란 무엇인가? 근년에 몇몇 곳에서 개최되었던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것을 간추려 보면 대학의 사명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춘 능력 있는 創造的 指導者를 육성하는 것과 고도로 分業化하는 현대 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전문가 및 기술인을 양성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대학이란 진리만 탐구한다는 象牙塔시대도 지났고, 전문가 양성만의 시대도 지나서 지금은 기술인까지 포함하는 한편, 책임의식을 갖춘 창조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중요한 의무까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토대로 본론의 제목을 풀이한다면 “한국 국가와 한국 사회에 대한 責任意識을 갖춘 능력 있는 창조적 지도여성을 육성하는 것과, 고도로 分業化하는 현대 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성전문가 및 여성기술인을 양성함”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여기에서 指導女性이란 뜻은 반드시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필요에 따라 때때로 임시적 회의가 조직될 때나 또는 외국에 단체로 초청받을 때에 기관장, 회장, 혹은 단장이란 간판을 갖는 위치에 서게 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직장에서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직장의 지극히 평범한 위치에서라도 자

기의 의무를 模範的으로 잘 수행함으로써 모범직원이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精誠을 기울여 난관을 돌파하는 데 앞장을 서서 몸을 아끼지 않으며 그 기관을 사랑해 줄 때 다른 동료들은 자연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절로 지도자가 된다. 또는 설혹 100% 가정주부의 역할에만 전념하더라도 대학출신 여성으로 洞會에 참석하거나 또는 敎會에서 평교인들 앞에서 중요한 의논을 할 때 모든 것을 合理的으로 또는 現實的으로 가능한 해결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출하는 것 등등은 허술하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지도력의 발휘이며 무게 있는 공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은 大學教育을 받은 여성의 90% 이상이 결혼하여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의 더러는 남편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완전한 職業女性이 있는가 하면 자녀의 어머니로서 책임이 무거워서 시간제 직장을 구하여 가정주부와 직장생활을 겸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보수는 없지만 자기의 사명을 절감하고 自願奉仕를 요구하는 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교육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뜻있게 쓰고 있다는 自負心과 矜持를 가진 사람도 많다.

여기에 강조하려는 점은 대학출신 남성은 대부분 직장을 통하여 형식을 갖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발휘하는 반면 대학출신 여성은 직장 이

외에서 非形式的인 지도자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어느 편이 더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통계 수자로 표시하기도 어렵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교육받은 자자의 良心과 使命感에 맡길 뿐이다.

둘째로 대학교육의 內容에 대한 문제이다. 민주화 도상에 있는 우리 한국은 남녀평등의 대전제하에 헌법이 제정되었고 비록 차별대우라는 것이 傳統의 유물로서 남아 있지만 이것은 한 시바때 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교육이란 것도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남녀공학을 一律的으로 실시해야만 矛盾이 없다고 하는 일설이 있는가 하면, 여성은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중간 단계를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요 모순이 없다는 또 한 가지의 이론이 並行하고 있다. 물론 두 가지 설에 다 일리는 있다.

만약 남녀간의 先天的 能力, 즉 지능지수(IQ)에 우열의 차가 없다면 그런 전제에서 남녀 교육의 내용을 달리 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달리 할 조건이 있다면 형식상 교육이 끝난 후 국가사회에 寄與할 때에 대개 어떤 방면으로 分業이 전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육정책상 고려될 문제이다. 바로 이 점만이 본 제목의 초점으로서 고려하고 싶은 점이다.

그 시대 그 국가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창조적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人文科學이나 自然科學 등의 기초지식이나 인격도야에 필요한 수련은 얼마든지 남녀 공통으로 실시할 수 있겠으나, 현대 산업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와 技術人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을 세밀히 참작하는 것이 막연한 준비에서 오는 낭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요하는 醫學教育이 바로 최근까지도 미국에서는 여자에게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만약 入試結果만으로 의과대학에 합격시킬 경우 오히려 여자의 수가 더 많을지도 모르고 동수일지도 모르지만, 그 배운 지식을 남자는 100% 사회에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여자는 대부분 가정생활로 들어가면 주부가 本業이고 의료사업은 副業이 되고 마는 까닭에 고도의 훈련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財政에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의 의사노릇을 하려면 그 개인이 담당하는 교육비 이외의 국가에서 담당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투자를 확실치 못한 곳에 한다는 것을 꺼리는 셈이다. 사실상 어떤 여의사는 남자의사 이상으로 그 專門知識을 훌륭하게 사회에 바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상으로 볼 때 여의사 전체가 100% 바치고 있지 않다는 근거에서 입시에 똑같은 成績이면 여자는 불합격이고 남자는 합격이 되는 형편이다.

그 결과 어떤 개인 여자에게는 심한 不公平과 희생이 될 수도 있다. 남자와 실력은 같지만 女性制限에 걸려 평생 100% 의사직에 충실할 여자는 떨어지고, 반면에 성적이 뛰어나게 우수하여 합격되는 여자 중 의사직을 부업으로 가진 여자가 있는데도, 政策이란 대량을 상대하는 것이요 개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남녀차별 대우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의료사업 인적 투자에 손해를 막는다는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동안 잠잠히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 점에 대해 여성들이 반대운동을 일으켜 이 정책을 고치는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기에 이 사연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男女優劣의 차를 기초로 하지 않고 전혀 딴 이유로 남녀간 특성에 따라 職業分類의 어떤 정책을 세울 때에 그 설치 조정에는 까다로운 문제가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을 예측해 두자는 것이다.

세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女學士의 90% 이상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주부의 임무가 본업이 되고 다른 일은 부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각 개인의 성격과 취미에 따르는 適性和 職業選擇을 목표로 해서 전문과목의 設定을 어느 정도 고려하되 고도로 분업화하는 현대 우리 産業社會를 이끌어 나갈 전문가와 기술자들 중에 남녀의 자연적 분업이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기울어지는 편을 가일층 훈련·세련시켜 그 방면의 전문가로서, 기술자로서의 면목을 갖추는 데 박차를 가할 필

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2次大戦 발발 당시 전체 주의 국가들이 부르짖은 바와 같이 여성은 職業職線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남성이 받는 직업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말하자면 여성을 교육시키려면 가정이나 살림공부만 시키라는 그 時點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판이하게 각 개인의 선택에 맡겨 두되, 그 자연선택의 결과가 女學士들의 대부분이 生産經濟에 가담하기보다는 消費經濟에 가담하고 있다면 소비경제의 전문가가 되도록 여대생에게 그와 관련된 과목을 필수로 가르치는 편이 근대화 的 役軍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도여성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한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近代化를 운운할 때에 人的 資源의 확보가 物的 資源의 확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소년·소녀들이 탈선·비행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6세 이전에 인격의 반이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女學士의 90% 이상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育兒와 아동 발달, 思春期 자녀 지도의 전문지식을 여대생에게는 필수로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년에 와서 세계적으로 소년 폭력범이 많아지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현상인데 TV와 같은 대량 전달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하여간 어떠한 방법과 연구를 해서라도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인데 여성들이 한층 더 분발해야 할 것은 설명할 나위도 없다. 1983년 5월 9일 아침 방송에 의하면 92%의 소년 범죄의 원인은 가정에서 나왔다는 놀라운 소식이었다. 가정을 바로잡고 건전하게 이끌어 나갈 장래의 주부들에게 어떠한 투자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네째로 어떤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鐵則을 시인한다면 近代化의 課業이 먼저 가정 안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상식만으로는 될 수 없고 조직적이고 계획성 있는 대학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근대화의 과업이란 것은 가장 짧은 정의로 나타낸다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어 合理化하고 科學化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만사에 불합리성을 예리하게 발견하고 용감하게 시정해야 하는 중에 가장 그 자료가 많은 곳은 가정이요 가장 큰 효과를 거둘 곳도 가정이다. 이것은 가정을 관리하는 여성의 힘이 아니고는 착수하기도 성취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새 유행에 예민한 듯하면서도 가장 전통에 충실하고 보수적인 것이 여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不合理性이나 非科學性이 일단 전통화된 후에는 여성의 손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관계로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며, 평가하는 훈련을 대학 과목에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 점에서 혼동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주의를 환기한다면—1차, 2차의 세계대전을 겪어 온 세계는 전반적으로 재래의 남녀간의 직업적 분업에 큰 변혁을 일으켜 왔으므로 原始時代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걸쳐 여성의 전배특허로 되어 왔던 織物(옷감 짜는 것), 제봉, 요리, 保育의 부면이 거의 세계적 산업화의 신흥으로 가정 속의 여성의 손에서 공장 속의 남성의 손으로 옮겨 갔다. 그와 동시에 남성의 專屬職業으로 인정되었던 관사, 검사, 변호사, 고급 행정관, 회사 지배인, 공장장, 학·총장, 교장, 외교관, 국회의원 등이 여성의 손으로 옮겨지고 있다. 서양에서는 유치원 보모, 간호원, 미용사도 남성들이 많이 지원하여 실천하고 또 실효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어떤 전통적인 남녀간의 직업적 분업에 얽매이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능률적이요 현대적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人爲的으로 고압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현대 한국 주부가 남성이 만든 기성복을 입고, 남성이 만든 반찬 半製品을 사다가 남성이 만든 간장과 남성이 짠 참기름으로 양념을 치고 식사 준비를 하며, 어린 딸은 유치원에서 남자 보모에게 보육을 받고 있다고 해도 엄연히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그 가정에 속한 식구들의 사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도록 빈틈 없는 관리를 맡은 자는 주부이고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부의 직책을 택한 그 전문직을 다른 專門職에 못지 않게 대학시절에 지도해야겠다는 것이다. 남녀 직업의 분업이 역사적으

로 변천하면 할수록 여성의 대학교육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교양과목 중 家庭管理, 육아 및 아동발달, 소비경제를 필수로 할 것을 제청하고 싶다.

끝으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여자대학과 男女共學의 대학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이 더 장점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82년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미국 여자대학을 방문했을 때이었다. 백년이 넘는 역사와 더불어 자연환경과 건물들이 잘 어울리고 위엄 있게 보였다. 한국에서 여자대학에서만 30년 이상 교육을 해 온 필자로서는 알고 싶은 궁금한 문제가 많았지만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물어 보아야겠다던 질문이 있어서 그 대답받은 것을 여기에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에 西獨 정부로부터 서울여자대학이 과학관을 기증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의 건설 도중에 서독 정부를 대표하는 몇몇 손님이 내방하여 우리 학교의 教育方針을 설명듣고 나서 하는 말이 구라파에서는 대학 교육이라면 으레 전부 男女共學制度이고 따로 여자대학이란 것은 없는데 당신 나라에서는 왜 여자대학을 따로 해야만 하느냐고 하기에 필자는 과거에 여자대학과 남녀 공학하는 대학의 경험을 골고루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長點과 短點을 상당히 뚜렷하게 잘 설명하느라고는 했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그 여자 대학장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그의 대답은 좀 색다른 것이었다. 즉 최근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여성지도자들의 출신대학을 조사해 본 결과 절대 다수가 남녀공학 대학이 아니고 여자대학출신이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男女共學 대학에는 아직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반을

대표하며 그 科를 대표하고 그 대학 전체를 代表하는 학생 대표자를 뽑을 때 대개는 남학생이 뽑히니까, 여학생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안 주어지고 따라서 대학 시절에 指導力을 발휘할 기회가 여자대학에 비해서 너무 억울하게 빼앗긴다는 것이었다.

이 말도 듣고 보니 다른 장·단점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그러니까 학생시절에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적당히 잘 주어지면 그만큼 효과를 나타낼 것은 정한 이치요, 이 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남녀 공학하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여대생에게는 학생 대표라는 직책 이외에도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유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사이 목적이 다양한 여러 사회복지단체와 기관에서 無給인 자원봉사자를 요구하는 기회가 있으므로 자기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부면을 택하여 공부감당에 희생이 없는 한도내에서 봉사해 보면 많은 실지 경험을 얻음으로써 마치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한 敎生實習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학생시절에 사회의 실지 경험을 해 보는 일은 학생 자신이 구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 알선할 수도 있으나 대학에서 이 방면에 권장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여간 우리나라에는 남녀 공학하는 대학과 여자만 따로 교육하는 여자대학의 두 종류가 있는 이상 자기 長短點이 있다면 서로 단점은 연구해서 보충하고 장점은 더욱 크게 살려서 서로 경쟁적으로 힘차게 갈만하면 오히려 여자대학이 따로 없는 나라보다 국가 전체적으로 더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